



산업동향 www.kcca.or.kr



- '10.1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76.2월 이후 최대폭 증가
- 수출중소기업,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 적극 대응철심
- 中企 실물경기 회복세 완연
- 中企경기 '침체의 긴 골' 서 탈피
- 중소기업 14.7% 산업기밀 유출피해

- 전체 전력판매량은 두달 째 두자리수 증가세 이어가 -

'10.1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76.2월 이후 최대폭 증가

□ 2.17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력판매량은 산업용 판매량 증가와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하여 두 달 연속 두자리수 증가하였음.

□ 이중 산업용 전력판매량(전체 판매량의 49%)은 24.0% 증가해 지난 '76.2월 25.0% 증가한 이후 33년 11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는 ①전년 동월의 감소세(Δ11.0%)에 따른 기저효과와 ②설연휴 이동('09년 : 1월 → '10년 : 2월)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1일) 및 ③수출 호조(전

년동월대비 47.1%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요업종 전력사용량 증감율(전년동월대비,%) : 자동차 49.4, 철강 43.0, 조립금속 33.2, 기계장비 31.7, 펄프종이 19.9, 반도체 19.5, 화학제품 18.7, 섬유 16.0, 조선 14.0, 석유정제 12.6

□ 산업용 외 용도별 전력판매량을 보면,

- 주택용 및 일반용은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1%, 10.3% 증가

※ 1월 기온통계 : 전국의 평균기온 -1.6℃, 평균 최고기온 3.8℃, 평균 최저기온 -6.5℃로 평년보다 각각 0.6℃, 0.5℃, 0.9℃가 낮음.(출처: 기상청, '10.1월 기상자료)

※ 할인점 매출액 증감율 : (09.9)Δ6.0 (10)4.5 (11)Δ2.8 (12)3.9

-교육용 및 심야전력 판매량은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3.1%, 3.1% 증가

<참고자료>

'10.1월중 전력판매량 등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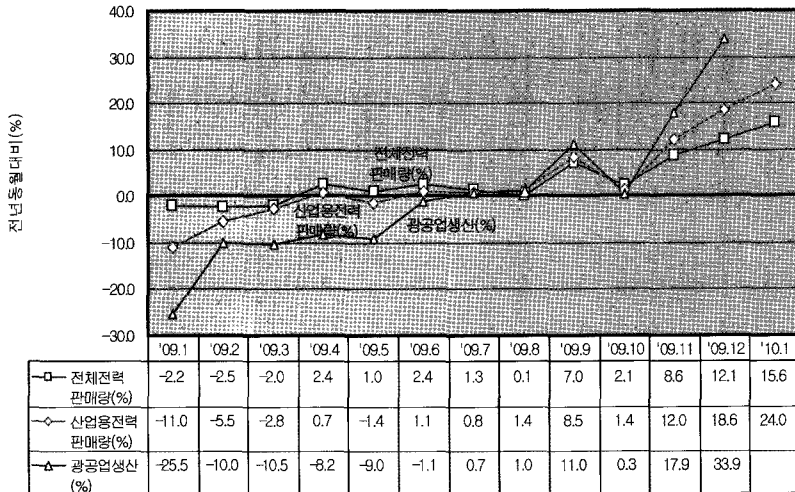
< 용도별 전력 판매량 >

(단위: 천MWh, %)

용도	'09.12월	증감율	'10.1월	증감율	'09.12월	증감율	'10.1월	증감율
산업용	19,065	(18.6)	207,216	(1.8)	19,427	(24.0)	15,662	(Δ11.0)
교육용	727	(17.4)	6,465	(11.8)	724	(23.1)	588	(16.0)
주택용	5,188	(5.0)	59,427	(2.7)	5,685	(6.1)	5,360	(4.3)
일반용	8,031	(6.6)	89,619	(3.2)	9,297	(10.3)	8,427	(7.2)
농사용	863	(11.3)	9,671	(9.0)	1,016	(16.9)	869	(15.3)
가로등	288	(9.0)	2,954	(3.8)	297	(8.5)	274	(Δ3.3)
심야전력	2,473	(0.5)	19,121	(Δ 1.4)	3,268	(3.1)	3,171	(5.9)
총 계	36,635	(12.1)	394,475	(2.4)	39,713	(15.6)	34,350	(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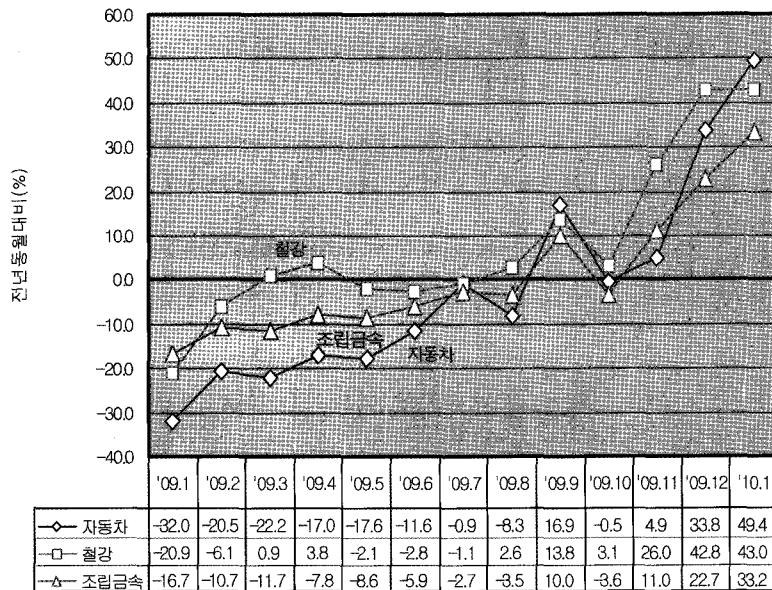
* ()내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율

< 전력판매량 및 광공업생산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 자료 : 한국전력, 통계청(광공업생산지수)

< 업종별 전력판매량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율) >



* 자료 : 한국전력

수출중소기업,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 적극 대응절실

□ 향후 3년간 해외 환경규제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 앞으로 점점 높아질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에 의존하는 비중(72.6%)이 높은 만큼 정책적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선,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교적 높고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응답기업의 51.0%가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잘 모르는 업체보다 2.6배 높았으며, 2005년과 2008년의 조사에 비해 인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아직도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한편, 수출 중소기업 중 62.2%가 해외 환경규제의 빠른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 정도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해외 환경규제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62.2%로 '더디게 강화' 또는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기업에 비해 5.4배나 높게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 환경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매우 적극적'과 '적극적'의 합) 기업의 비중은 35.9%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 이는 해외 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환경규제의 경영활동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3년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향후 3년간 해외 환경규제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매우 많음'과 '많음'의 합) 기업의 비중이 49.8%에 이르러, 현재 영향이 많은 기업의 비중 23.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3년간 시장별 영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EU 시장(28.1%p 증가)과 중국 시장(27.2%p 증가)을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외 환경규제의 대응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72.6%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환경인증 획득'이 28.2%

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정보수집 강화'가 21.6%로 높게 나타나, 이들 활동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런데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이 72.6%로서 회사 내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비해 5.7배나 높게 나타났다.

- 이를 반영하여 대응 활동 추진에서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추가자금 부담' (36.7%)과 '전문인력 부족' (22.4%)을 지적한 기업이 많았고, 추가 소요 비용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45.1%의 기업이 많은 ('매우 많음'과 '많음'의 합) 것으로 응답하였다.

□ 앞으로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가 높은 '자금 분야', '인증획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자금 분야' (21.7%), '인증획득 분야' (20.1%), '정보확보 분야' (14.7%), '기술개발 분야' (14.4%), '시험분석 분야' (10.6%)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의처 : 산업연구원 홍석일 연구원 02-3299-3034

중소 실물경기 회복세 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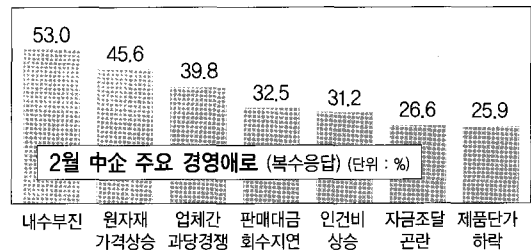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생산은 2008년 같은 달보다 19.3% 정도 늘어났다. 중소기업제조업의 전년동기 대비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10월 -7.5%에서 11월에는 7.5%로 상승세로 반전한 데 이어

12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19.3%를 나타냈다. 또한 이달의 중소기업제조업 업황 건강도지수(SBH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오른 90.9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들 지표를 근거로 지난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바닥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 분야의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계절적 요인과 희망근로사업 중단 등으로 11월(3.5%)보다 크게 높아진 5%대의 실업률 정도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등록일 : 2010/02/22

제 1772호 2010년02월24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중소경기 '침체의 긴 골'서 탈피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의 긴 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 햇볕이 들고 있다.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7년 5개월만체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균기동률도 5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제조업체 1천37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 결과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 90.9 보다

9.5포인트 상승한 100.4를 기록했다. SBHI가 기준치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2년 10월(108.7)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주요국의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토목·건설 등 일부업종의 비수기 종료, 신학기 효과 등으로 내수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기업과 중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일반제조업과 혁신형제조업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중기업은 기준치(100)를 초과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중화학공업과 혁신형 제조업 역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 전기장비, 종이 및 종이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9.7), 자동차 및 트레일러(105.4) 등 12개 업종은 기준치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생산, 내수판매, 수출이 기준치 이상을 기록해 크게 나아졌고, 경상이익, 자금사정, 원자재조달사정 항목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중소제조업 업황 실적은 전월 83.9 보다 0.9포인트 상승한 84.8을 기록해 5개월 만에 상승했다. 2월 중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재 가격상승(45.6%), 업체간 과당경쟁(39.8%), 판매대금 회수지연(32.5%), 인건비상승(31.2%), 자금조달 곤란 26.6%, 제품단가 하락 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1천378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동률조사 결과 올해 1월중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0.9%)대비 0.3%포인트 상승한 71.2%를 기록했다. 가동률 80% 이상 정상가동업체 비율은 전월(41.7%)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4.1%를 기록했다.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14.7% 산업기밀 유출피해

- 유출 1건당 10.2억원 (연 매출액 대비 9.0%) 피해 -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직무대행 박용현)가 공동으로 실시한「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실태」조사결과,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10.2억원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밀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4.7%에 이르며,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0.2억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대비 9.0%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유출피해 기업 비율이 15.3%, 유출 피해금액이 건당 9.1억원(연평균 매출액 대비 7.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는 약 4조 2,156억원에 이르고,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이처럼 최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에 따른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